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중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2월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 어촌 관광기반 조성 새로운 소득원 개발

### 화성 궁평리 등 9개 어촌지역 선정 '어촌·어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해 어업소득원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올해 화성군 궁평리, 기장군 공수리 등 9개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민관광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장축소,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촌·어항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촌·어항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획집, 숙박시설 등 직접 소득사업을 제외한 관광사업은 미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국가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 장기적으로 관광단지화 하기로 하고 대도시에 인접한 영덕군 대진리, 북제주군 고산리, 안산시 선감동 등 전국 9개 지역을 시범어항으로 선정해 진입도로, 주차장, 휴게실 등 기초기반시설 확충에 총 94억2천만원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내방객의 접근도가 높은 수도권의 화성군 궁평리, 부산·경남권의 기장군 공수리, 영동권의 삼척시 장호리, 충청·전북권의 서천군 송서리 등 4개 어촌지역에는 금년도 투자비의 59.2%인 55억8천만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의 관광시설 확충을 촉진하는 한편 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관광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가구당 2천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용자·지원하고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민박시설 개선자금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 관광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전국 어촌·어항 부존자원조사용역을 실시, 개발잠재력이 높은 마을 또는 어항에 대한 기초시설건설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향후 5년간 약 4조4,6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다각적인 환경시설사업을 전개해 연안지역

하수처리율을 '99년말 46.3%에서 2005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으며 현재 58%에 머물고 있는 수중침적 폐기물의 처리율도 90% 이상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분야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양오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육상 오염원의 해양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2조9,128억원을 해양환경 시설자금으로 확충, 이중 1조6,831억원을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키로 했으며 연안도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4,091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3,615억을 각각 투자기로 했다.

또 해양수질개선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관리기반을 확충키로 하고 오는 2005년까지 총 5,766억원을 들여 연안어장 정화·정비, 오염해역 준설 등 26개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류오염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총 3,252억원을 들여 지역방제사업, 광역해역 해양오염 감시, 방치폐선처리사업 등 16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 제2종어항 가중치 적용 시도별 총액배정

### 항당 투자한도 8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2종어항 455억원(국비228억원)의 사업비를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농특세 투자할 수 및 연안어선 수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 개개 항별이 아닌 총액으로 시도별로 일괄 배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제2종어항 예산은 지난해보다 90억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전남 52억원, 경남 41억원, 강원 22억원, 제주 20억원, 충남 경북에 각각 19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제2종어항시설사업집행요령'의 규정을 개정, 항당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교부금을 포함 총 80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94년 농특세 신설과 관련하여 지원대상항을 94년 7월 이전에 지정된 2종어항(200개항)으로 한정, 지

원액을 완공 총소요액이 총 50억원 이내인 항으로 규제해 옴으로써 '94년 7월 이후에 지정된 제2종어항은 이용어선 수가 50척 이상되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제2종어항 건설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

로 어항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지정후의 전체적인 개발 부진 등 사업추진에 다소 문제가 예측되지만, 어항이 지역 경제권의 거점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일단 지정된 어항에 대해서는 완공위주의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2종어항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예산	2001 예산	증△감	%
계	18,200	22,750	4,550	25.0
부산	1,260	1,420	160	12.6
인천	1,250	1,380	130	10.4
울산	-	540	540	순증
경기	320	510	190	59.4
강원	1,820	2,200	380	20.9
충남	1,620	1,960	340	21.0
전북	1,130	1,360	230	20.4
전남	4,250	5,220	970	22.8
경북	1,630	1,980	350	21.5
경남	3,320	4,130	810	24.4
제주	1,600	2,050	450	28.1

\* 2000년 태풍피해복구비 국고채 80억원 제외

##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오염원의 해양유입방지, 해양수질개선 등 5대 정책분야에 금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총 4조4,60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오는 2005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해양환경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담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안을 마련, 이달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은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의 종료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계획으로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대 정책분야, 82개 세부실천과제에

올해 한국어항협회 사업계획 및 18억8천만원의 수지예산이 지난 3월13일 정부로부터 원안 승인됐다.

올해 협회의 기본사업방향은 수산기반 정비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어항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의 강화와 어항환경정화사업의 중점적 추진 그리고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보호 및 경영효율화와 조직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이래 추진할 올해의 주요사업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우선 수산기반 정비사업의 발전방향의 모색이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어항어촌의 종합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항발전과 협회의 본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을 본격화하는 체제의 구축 등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수 연구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제4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등 규모를 확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13차 해외어항어촌 조사단 파견, 제53회 일본전국어항대회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증진과 어항인 친선교류를 민간차원에서 긴밀히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항어촌의 중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항어촌을 지키고 발전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어항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작정이다.

다음은 어항 환경정화사업의 중점적인 추진이다. 어항청소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수년간 협회에서 추진해 온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과 강원도 침체망 인양사업을 수입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새천년의 어

항·어장·어촌을 일체로 한 종합적 수산기반 시설로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이에따른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효율화와 조직경쟁력을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 항구적인 수익사업 등을 개발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배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각오도 충분히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장애요인이 있게 마련이다. 더욱이 그것이 척박한 환경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임에는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없다. 이런 의미에서 협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어항발전과 어항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이 하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확고한 어항발전의 새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며, 이제야말로 우리나라 어항사의 새로운 장을 열 항구체제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사명이다.

따라서 21세기가 시작된 올해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이에 걸맞게 협회 역시 역동적이고도 생동감 넘치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혁신할 각오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등 어항과 관련한 연구 기술업무를 10여개의 어항관련 각종 단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는 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이 협회를 통하여 모두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협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협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장 먼저 어항인의 열린 가슴과 새로운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단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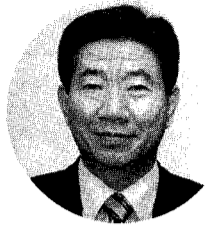
어항발전과 협회 발전을 위한 모든 어항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뜨거운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다.

어항인 화합과 단결 통해 어항발전 새역사 창조

동

정

#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서 특강



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6일 하이얏트호텔에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생을 대상으로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특강,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그리고 지식인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 7일에는 전북 군산시청에서 열린 '자율관리형 어업추진 토론회'에 참석, 12일에는 한미해양과학회의 미국 대표단을 접견, 이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를 주재, 15일에는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 참석, 16일에는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2001 연어치어 방류행사를 개최.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3월8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전고등학교 재경동창회 조찬강연회에 참석, 10일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열

린 서울행정학회 세미나에 참석, 13일에는 육군회관에서 열린 헌병창설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5일에는 프레젠타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관 세미나에 참석 이어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행정전략연구소 포럼에 참석, 19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22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학회창립준비회의에 참석, 2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 참석, 31일에는 한국행정학회 주최 '행위연구조사와 미래탐구회의' 워크숍에 참석.

▲정상욱 수협중앙회장은 3월12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에 참석, 17일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3월19일 중국 어정지회중심 후슈에동(胡學東) 처장 일행을 접견하고 한·중 어항기술교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 민간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을 실시, 21일에는 새어업인상을 시상.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3월2일 송원대학 입학식을 거행, 3일에는 송원중고등학교 입학식을 거행, 5일에는 광주은행 이사회에 참석, 23일에는 송원학원 개교 28주년기념행사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7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14일에는 대한사격연맹 회장 취임식에 참석, 16일에는 전경련 국제경영원 조찬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세미나

에 참석, 22일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조찬간담회에 참석, 26일에는 한일협력위원회 오찬 강연회에 참석, 29일에는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10세계박람회 기본계획홍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9일에는 4H후원회 주관 민간과 기업통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12일에는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 1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회에 참석, 19일에는 경영자협회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초청간담회에 참석, 23일에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7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10세계박람회 기본계획홍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15일에는 중앙일보 편집인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19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자전거순회 발대식에 참석, 21일에는 대통령 취임3주년기념 대통령자문위원 만찬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

회사 회장은 3월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10세계박람회 기본계획홍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15일에는 광주기계공고 총동창회에 참석.

▲송재성 성호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6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 인사**
-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장명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진 △유통기공과장 박종국
  - 취임**
  - ▲임중국씨(전 해양수산부 제2차관보)는 지난 19일 한국수산신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 의욕**
  - ▲라승진 대리(본회 기획관리부 근무)는 오는 5월1일 오후1시 영등포구청 옆 목화웨딩타운 3층에서 화촉을 밝힌다.
  - 의미남부**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남화토건주식회사(회장 최상욱)
  - 개인
  - ▲김중봉씨(전 수산청 서기관)
  - ▲손영수씨(전 한국어선협회 검사이사)
  - ▲차상희씨(전 한국수산회 부회장)

## 일본, 어항·어촌·연정 일체화 중시 '어항부'에서 '어항어장정비부'로 재편

일본은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는 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행정조직을 축소, 지난 1월 6일부터 1부

12성청 체제로 재편했다. 조직재편의 특징은 내각부의 기능강화와 조직의 상하 관계 위주로 운영되고 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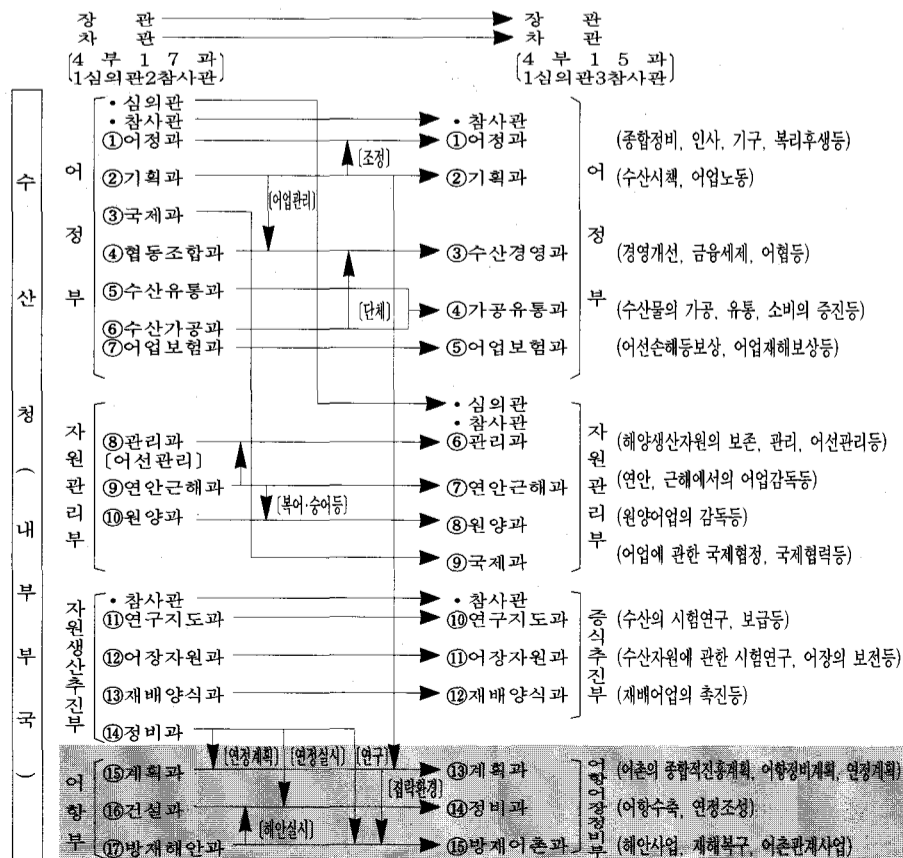
연결이 없는 성청 간의 벽을 없애고 행정과제마다 기능을 집약했다는 것이다. 수산청에 있어서는 수산유

통과와 수산가공과가 가공유통과로 통합되고, 자원생산 추진부 정비과의 연안계획업무는 어항어장정비부 계획과로, 연정(연안어장정비개발) 실시업무는 어항어장정비부 정비과로, 연구(연안어업 활성화 구조개선계획) 및 실시업무는 어항어장정비부 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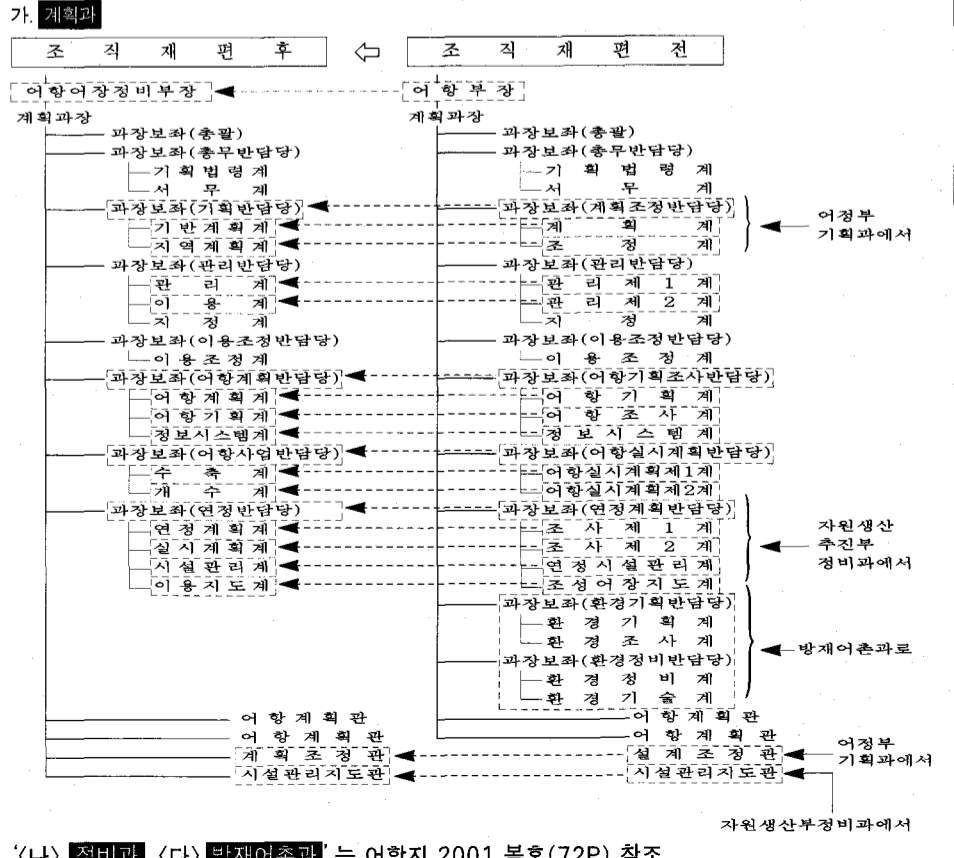
어촌과로 각각 편입되었다. 이것은 수산기본정책 중에서 수산기반정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르는 어업이나 환경·위생에 대한 대응 등 국민의 풍요로운 식생활 확보를 위한 수산물 안정 강화 △수산자원의 환경 개선 △어촌지역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어항과 연안어장정비 등 공공사업의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화와 종합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어촌정비와 연안어장정비개발이 일체화되어 '어항부'에서 '어항어장정비부'로 된 것이다.

<표-1> 수산청의 재편



<표-2> 어항부 재편



<나> 정비과 <다> 방재어촌과 는 어항지 2001 봄호(72P) 참조

# 낙후어촌 질적 개선 사후관리도 강화

## 32개 권역에 349억 6,800만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올해 계속사업 16개 권역에 163억원, 신규사업 16개 권역에 186억원 등 총 32개 권역에 349억 6,800만원을 들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권역내의 소규모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 및 어업지원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완공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완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영지도 등 완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도별 권역별 투자계획은 부산 7억 4,800만원, 인천 17억 2,600만원, 울산 8억 6,400만원, 강원 23억 7,200만원, 충남 12억 7,600만원, 전북 8억 6,400만원, 전남 88

억 5,200만원, 경북 23억 7,200만원, 경남 41억원, 제주 23억 7,2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연근해어장의 축소, 수산자원의 감소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해양오염, 적조발생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와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촌의 부족한 생산시설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의 소득을 도모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의 어촌 중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큰 160개 권역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약 35억원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45%, 자담 5%)씩 총 5,432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0년까지 93개 권역에 2,915억원을 투자하여 총 1,562개소의

생산기반 및 소득원개발시설 등 각종 어촌숙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의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의 소득향상과 주민생활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도 시·도별 투자계획

시도별	권역 수			사업비(백만원)			
	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계	32	16	16	34,968	17,484	15,736	1,748
부산	1	1	-	748	374	337	37
인천	2	1	1	1,726	863	777	86
울산	1	-	1	864	432	389	43
강원	3	2	1	2,372	1,186	1,067	119
충남	2	1	1	1,276	638	574	64
전북	1	-	1	864	432	389	43
전남	11	5	6	8,852	4,426	3,983	443
경북	3	2	1	2,372	1,186	1,067	119
경남	5	2	3	4,100	2,050	1,845	205
제주	3	2	1	2,372	1,186	1,067	119
해양수산부				9,422	4,711	4,240	471

# 연안 복합주거단지 조성

주거, 첨단산업, 문화·레저기능을 통합 수용하는 미래형 해양주거단지를 전국 연안에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지역의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에 인접한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첨단산업, 관광 및 레저기능을 통합 수용하는 복합주거단지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연안지역은 수산기능 위주로 개발돼 주민 정주여건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데다 배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최근들어 슬럼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연안지역의 정주기능을 회복하고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와 첨단산업, 관광·레저기능 등을 갖춘 소규모

해양주거단지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IT산업의 발달로 국민 생활패턴이 직장중심에서 주거중심으로 변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에 비해 자연경관이 뛰어난 연안지역에 대한 주거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향후 세부적

인 추진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지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지역별 소단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주거수요가 부족한 점을 고려, 도시에 인접한 연안지역을 중점 개발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중 서·남해안 다도해 지역과 기존 연안개발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중 2-3개 단지를 시범 조성키로 했다.

또 단지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안정비 및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 국토확장적 해안개발 억제

해양수산부는 항만 등 연안이용여건상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바다매립을 허용키로 하는 등 무분별한 해면개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2001-2011) 전국의 해면

약 40,258km<sup>2</sup>(1,200만평)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바다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매립규모는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960,669km<sup>2</sup>(2억9천만평) 대비 4%에 불과한 수준으로 오는 5월 제2차 매립기본계획을 통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해

면규모 대규모 매립사업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국토확장적 개발보다 환경친화적 매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농경지나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매립,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면에 대한

# 바다밑 폐기물을 한눈에

해양수산부가 1999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 146개 항만 및 어항 등의 바다밑 침적폐기물 분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추정량이 약 3만톤으로 나타나 바다를 살리고 연안어장의 황폐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는 양방향 음파탐사기, 그랩, 피스톤 코어 등 과학적인 장비를 활용, 항만 등의 바다밑에 침적된 폐기물의 양, 종류, 분포실태를 비롯한 기본현황을 포함하는 분포도 및 관리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조만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로서의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26개항의 수중쓰레기 약 1만2천톤(92억원)을 수거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85억원을 투입, 오염지역 약 25개소의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2004년까지 약 100개소에 대한 바다밑 폐기물 수거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갈수록 앞으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해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못지 않게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내집 정원처럼 아끼는'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립사업을 최대한 억제되도록 항만 등 연안이용여건상 매립이 불가피하거나 환경피해 영향이 적은 지역에 한해 제한적인 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매립지내 곡선형의 지선형성, 해수유통수로 및 일정한 정도의 친수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적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갯벌지역을 매립할 경우 매립지로 하여금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항만법 등 5개 관계 법률

의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의제규정을 삭제, 해안매립을 통합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2차 매립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매립수요지 총 355개 지구 402,580km<sup>2</sup>(1억2천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면적 대비 약 8.6% 수준인 34,428km<sup>2</sup>(1천만평)에 대해서만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중 제2차 매립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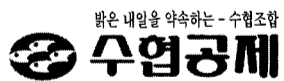
# 올해 연안항 항별 건설투자 계획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 수송수요 및 도서교통 편의제공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514억원을 투입하여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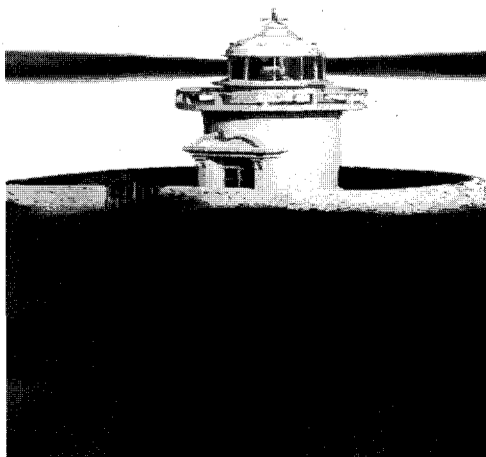
벽, 방파제, 물양장 등의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별 건설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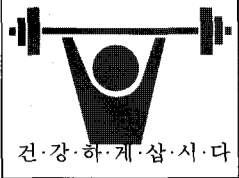
항명	2000예산	2001예산	2002이후
대천	9,152	9,318	3,000
비인	3,000	3,100	32,295
대흑산도	5,908	5,240	-
홍도	7,000	7,764	34,827
거문도	2,667	-	-
녹동	11,533	7,508	-
나로도	3,793	2,800	4,060
구룡포	1,520	1,200	784
후포	2,975	2,800	1,200
울릉(사동)	9,388	10,234	56,121
주문진	1,764	1,406	7,706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노인성 치매증

망각 우울 불면증 반복편 의심  
취미 일 갖도록 가족 보살핌이 중요

‘세수를 하려고 수도물을 틀었다가 잠거기를 잊어버린다’ ‘바로 오늘 아침에 한 약속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기억력 감퇴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치매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의학계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노망으로 더 잘 알려진 치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함께 치매노인의 치료 및 관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10%, 85세 이상은 47%가 치매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은 지난 90년에 4.7%에서 2000년에 6.8%, 2020년에는 1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그밖에 여러 곳의 뇌동맥이 막히는 다발성경색치매가 약 10~20%, 기타 갑상선 장애, 일산화탄소 중독, 알콜중독, 두부의상, 당뇨병,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일시적 치매 등이다.

이와같은 치매의 예방책으로는 지금까지 확실한 방법이나 외있지 않지만 신체적 건강상태의 유지, 지속적인 정신활동과 사회활동의 유지, 가족들과의 잦은 대화 및 따스한 가정분위기의 조성 등이 좋은 예방이 된다고 한다.

또 환자의 집중력, 기억력 등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환자의 하루 일과를 일정한 스케줄에 따르게 하거나, 환자방의 시계나 달력은 뚜렷한 숫자로 표시, 규칙적으로 TV시청이나 신문보기, 밤에 약한 조명을 켜서 야간혼동의 가능성을 줄이기 등의 조치를 해 환자가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한다.

치매의 치료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이다.

치매라고 단정하기 전에 신체나 정신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병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치매라고 단정해 버리면 회복이 어렵다는 선입견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어떻게 치료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환자의 간호는 식구 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담간호사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셋째, 의학적 치료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치매 자체에 관한 한 초보단계이며, 보조적인 약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균형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등이 따라 주어야 효과적이다.

넷째, 증상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활동이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노인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조건 쉬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하게 할 일이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결국 노인성 치매는 개인, 가정, 사회의 공동투자로만 해결이 가능한 노인문제의 일부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어느 정도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 생활정보

사. 기러기 교실 :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으로 혼자 된 여성을 위하여 강좌를 개설하였다. 남편에게 의존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는 모임으로 3개월 과정이다.

아. 어린이 글짓기 교실 :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사고력 배양을 위해 개설되었으며 매해 여름과 겨울방학에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서예교실 : 매주 토요일에 한글·한문 붓글씨 강습을 하고 있다.

차. 혼인준비교실 : 성숙한 결혼을 유도하고 혼인 생활의 파탄을 막기 위해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자세를 준비시키는 강좌이다.

카. 법률임상실습 : 대학생들의 법률구조사업에의 참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비롯하여 각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가정관리학과, 심리학과 등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6.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  
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전문 상담요원을 교육시켜 배출하고 있다.

### 7.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교육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에 의해 가정보호사건의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담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을 통해 폭력 성향의 교정을 유도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 8. 무료결혼식 사업

상담소는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의 하나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동거 부부, 공장 지대의 미혼 남녀사원,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다.

### 9. 조사 연구 및 출판 홍보 활동

가. 도서실 운영  
가정, 아동, 법률, 여성, 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내)F>

권관계 15,000여권의 도서와 국내외 9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갖추고 있다.

나. ‘가정상담’지 발행  
가정문화 창달과 여성여론을 위한 창구로서 창간되어 매월 15일에 발행되며 가정의 민주화와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다. 기타 단행본 발행  
상담사건을 분석한 상담 사례집을 매년초에 발간하고 그밖에 가정문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한 단행본을 부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 10. 가족법 개정 운동

남녀를 차별하는 가족법이 존재하는 한 법률구조사업만으로는 역을 풀 수 없다는 인식하에 상담소는 창립 이래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강연, 방송, 인쇄물을 통한 계몽 활동과 관계기관에 건의문, 호소문,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함은 물론, 연극공연, 서명운동, 각종 포스터 및 팸플릿 제작 배부,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1989년

12월 대폭적인 개정을 실현시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상담소는 헌법재판소에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동성동본금혼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사실 되도록 하였다. 또 상담소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호주제도가 민주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 이념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 11. 국내외 지부 설치

법률구조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여 추진해 온 지부설치사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9년 9월 현재 국내에 29개 지역(전화번호 뒷면 참조), 미국의 6개 지역(남가주, 씨애틀, 워싱턴 디씨, 뉴저지, 필라델피아, 오렌지 카운티)에 상담소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 12. 법률상담 실적

1956년 창립 이래 43주년을 맞은 상담소는 가난하고 법을 모르는 약자에게 법을 가르쳐 주고 어려운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1999년 8월 현재 총 건수 1,283,583건에 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담 1,273,042건, 화해조정 4,645건, 무료대서 5,550건, 소송수조 346건 등이다.

### 13. 상담안내

○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소 1층 현관에서 변호표를 받은 다음, 4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자기번호 순서가 되면 접수실에 들어가 간단한 내담자 조사를 작성한 후 개별 상담실에서 상세한 상담을 하면 된다.

○ 상담시간  
평 일 : 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1시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

○ 통신상담 : GO BBSOS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나우누리)-부부갈등 클리닉

○ 인터넷 상담 : http : \\ 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인터넷 상담실

○ e-mail : bbsos @ chollian.net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3]

## 第4章 地盤改良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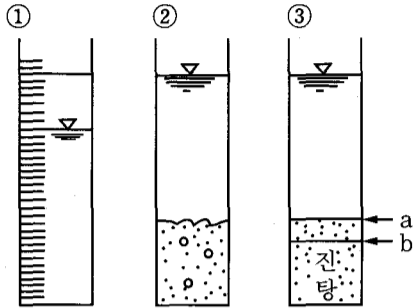


그림 4.3.8 메스실린더법에 의한 실트분의 측정법

(2) 품질관리

### ① 모래말뚝 조성관리

모래말뚝(sand pile)은 샌드드레인(sand drain)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절단하는일 없이 소정의 깊이까지 확실하게 타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기록장치(GL계 및 SL계)에 의하여 박기부터 파일의 마무리까지의 연속적 기록에 의하여 시공관리를 한다(그림 4.3.5 참조).

속채움모래투입후, 케이싱파이프를 뽑아낼 때는 모래가 케이싱파이프에 함께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압축공기를 보내는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압축공기를 보낼 때에는 압축공기의 입력이 너무 높으면 모래말뚝의 과도한 침하나 해저면의 교란을 일으키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 ② 재하성토(Preload)의 관리

재하성토는 샌드파일을 시행한 점성토 지반의 압밀강도증가에 알맞게 성토를 단계별로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개랑지반상의 성토는 측방유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균일한 성토관리를

- ① 메스실린더에 물을 넣고 눈금을 판독한다
- ② 모래를 넣고 증가한 눈금을 판독한다.
- ③ 잘 혼든후, 침전한 모래의 세입분과 조입분의 경계면의 눈금(a 및 b)을 판독한다.

를 해야 한다.

재하성토의 관리 순서를 그림 4.3.9에 도시한다.

### ③ 모래말뚝 및 점성토 지반의 강도관리

#### a. 모래말뚝의 강도

모래말뚝 그 자체의 강도는 그리 관계가 없으나, 어느 정도의 밀도를 지니고, 투수성이 좋고, 장기간 틈막힘 등이 생기지 않는 모래말뚝이어야 한다.

샌드파일 마무리의 연속성 관리로서는 관입시험에 의한 N치 측정을 실시한다.

샌드파일의 불교

란 시료 채취에 의한 밀도를 측정한다.

b. 점성토 지반의 강도  
재하성토의 단계시공마다 점성토 지반의 강도가 증가하는데, 계산상의 강도증가 및 침하와 실제의 값에서는 차가 있으므로 공사시공 도중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관입시험 및 시료 채취에 의한 일축압축시험 등의 시공관리를 한다. 최종 시점에서의 관리도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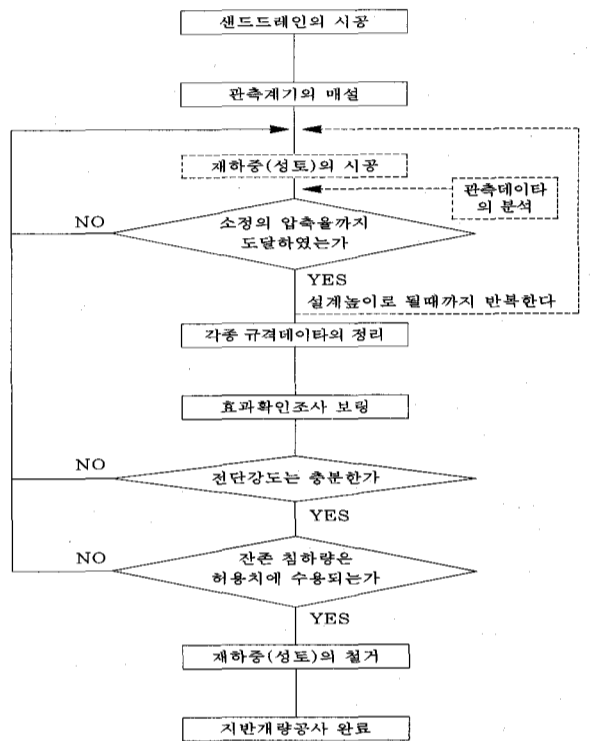


그림 4.3.9 재하성토의 관리순서